

눈감을 때까지 가슴에만 묻었던 “4·3 피해자”

“해코지 무서워”… 신변보호 요청 급증

2018년 138건서 지난해 462건으로 세배 늘어난

어제 4·3 직권재심서 30명 전원 무죄... 370명째 유족 “모 생전 입 밖에도 안꺼내... 4·3 공부할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나 서야 딸은 가족의 비밀을 알게됐다. 가족이 제주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군법회의 수형인 30명에 대한 14차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370명이 억울함을 풀 것이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30명 모두 행방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족이 4·3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몰랐던 사례도

있었다. 1948년 제주에서 목수로 일하다 느닷없이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故 현지옥씨의 외손녀 전영신(49)씨 얘기다.

전씨는 “할아버지가 끌려갈 때 어머니는 8살이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사실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며 “이번에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31년 전인 1991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이후 할머니는 도저히 제주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어머니를 비롯한

삼형제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했다”며 “하지만 할머니 역시 어머니가 16살이던 1954년에 돌아가셨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어머니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자신인 나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재판을 받으러 제주에 간다고 하니 19살 난 아들이 4·3이 뭔지 궁금해 하더라. 이제라도 가족 모두가 4·3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1949년 군법회의의 피해자 故 한중섭씨의 조카인 한재우(55)씨는 “큰 아버지는 북촌에서 오현중을 다닐 정도로 수재였지만, 4·3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임신 2개월이던 큰어머니 역시 북촌에서 총살을 당했다”며 “생전에 할머니는 당시

아들 얘기를 나에게 자주 해주며 슬퍼하셨다. 할머니의 원한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1948년 군법회의의 피해자 故 김문희씨의 여동생인 김숙생(85)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오빠는 4·3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제주에 온지 3일 만에 변을 당했다”며 “4·3 당시 오빠 3명을 비롯해 아버지, 할머니, 율개 등 집안이 멸족을 당했다. 나라에서 이제라도 누명을 벗겨주다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장 부장판사는 “4·3이 1차 비극이라면 남겨진 유족들이 말 한마디 못한 채 숨죽인 세월은 2차 비극”이라며 “이제는 좀 떳떳해지시라”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2021년 46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29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

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늘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보복 등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스타트 위치 지급, 신변 경호, 거주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가해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무차별 살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1770만㎡에 뿌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살포 면적이 1700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제주도내 골프장은 41곳, 총 면적 3348만9557㎡에 이른다. 이 중 농약이 사용되는 면적은 1773만8986㎡으로 전체 면적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 ‘티오파네이트메틸’, ‘이프로디온’, 살충제는 ‘페니트로티온’ 등이다. 특히 클로로탈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계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유럽연합에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농약이다.

하지만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기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올해 4월 고독성 농약으로 99개 품목을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잔디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 반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뭉치는 전국 최고 임금은 전국 최저, 제주도 생활임금 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통계청의 ‘2021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상승률’에 따르면 제주 지역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90만원으로 전국 평균 358만원 보다 67만 원이나 낮아 전국 최하

위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생활임금 인상은 3.1%로 전국 평균 임금 수준은커녕 해마다 오르는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인 222만원의 높은 제주지역 물가 속에서 1인 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부족한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소 12.5% 이상 인상에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조치 아동 자립 시기 20대 후반으로 상향 필요”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보호조치 아동수는 2016년 6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능력, 건강관리, 학업, 대인관계 등 향상 프로그램을 중학교 때부터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세지원 매물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청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조치 아동들의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제주지역 청소년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읍민속마을을 수락여행단 20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찾은 수락여행단 학생들이 마을 곳곳을 탐방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진정세... 4차 접종 13.7% 그쳐

기저질환 앓던 70대 숨져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도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1682명으로 늘었다. 현재 도내에서 격리중인 확

진자는 1851명, 위중증 환자는 없지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70대가 지난 18일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15명으로 늘었다.

도내 확진자 추이는 지난 17일 270명, 18일 223명, 19일 268명 등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353명이며, 총 확진

자는 2472명으로 전주 대비 904명이 줄어 증가세가 주춤 모양새다. 추석 연휴 후 진단 검사 수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제주도가 집계한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에 따르면 도내 3차 접종률은 65.1%, 4차 접종률은 13.7%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2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초청행사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한라산둘레길 에코힐링 체험 <국민건강 치유트레킹> 행사를 알립니다.

1. 사 명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하는 <국민건강 치유트레킹> 에코힐링

2. 일 시 : 2022년 9월 24일(토) 08:00 ~ 16:00 (8시간)

3. 사업 내용

가. 행사일정 : 2022년 9월 24일 (토) 08:00 ~ 16:00 (8시간)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 집합 후 이동 (버스)

나. 장 소 : 한라산둘레길 수악길 5구간 (돈내코탐방로 - 이승악 오름)

다. 이 벤 트 :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 치유 프로그램
라. 모집인원 : 40명

마.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순 40명 / 참가비 무료)

바. 접수방법 : 전화접수 (064-784-4280), 09:00 ~ 마감 시까지
사. 준 비 물 : 산행복장, 우비, 덧옷, 등산화, 배낭, 간식 (행동식), 물, 기타

아. 제 공 : 버스, 보험가입, 김밥, 간식, 기념품

자. 행사문의 : 한라산둘레길 숲길센터 (064-784-4280)

*유의사항 : 이번 행사는 돈내코탐방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이승악을 주저장까지 연결된 코스로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름다우노후! 알하는노후! 행복하는노후!

시니어생명지킴이(재·살자사업단) 참여자 모집

제주시니어클럽에서는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일차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인원	활동내용	참여대상
내용	7명	- 농약보관함 관리 모니터링 - 자살예방 상담홍보 관리업무 모니터링	- 만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경력자) - 여할 지역 활동 가능자 (활동지역)

*신청제한자 : 기초생활수급자, 직장가입자, 타기관 및 재정일자리 중복자

■ 신청기간 : 2022. 09. 21(수) ~ 2022. 09. 29(목)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자격증 사본 1통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제주시니어클럽(직접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5층(이도1동, 고공복지플러스센터)

■ 상담전화 : 745-3998-9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도바둑대회

□ 대회요강

- 대 회 일 : 2022. 09. 25(일) 10:00~
- 대회장소 :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제주시 광양4길 32)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대회 부문

구분	참가부문	참가자격	비고
성인 부문	제주최강부		총호선
	동호인단체부	아마 4단 이하 · 3인 단체전	단체전
	유단자부	아마 1단 ~ 아마 3단	치수제
	60세 미만 급부	만 60세 미만(1963년 이후 출생)아마 1급 이하	
학생 부문	60세 이상 급부	만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아마 1급 이하	
	여성부	만 19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 여성	
	학생최강부	중·고등학교 및 14세~19세 홀스쿨링 청소년	
	학생고급부	중·고등학교(홀스쿨링 포함)아마 1급 이하	
	초등최강부	초등학교생·아마 3단 이상	총호선
	초등유단자부	초등학교생·아마 1단~2단	
	초등고급부	초등학교생·아마 1급~4급	
	초등상급부	초등학교생·아마 5급~9급	
초등중급부	초등학교생·아마 10급~14급		
초등초급부	초등학교생·아마 15급~19급		
유치부	7세 이하 유아		

○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민

■ 참가접수 :
 ■ 성인부문 : 2022. 09. 25(일) 09:30까지(현장 접수 가능)
 ■ 학생부문 : 2022. 09. 22(목) 19:00까지(현장 접수 X)
 ○ 참가 신청 및 문의 : 010-9886-3066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총무 문혜성)
 ○ 시상내역 : 우승 준우승 - 트로피 및 부상, 공동 3위 - 상장 및 부상
 장려상(학생부문) - 상장 및 부상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경매야, 한판 붙자!

엄청난 경제한파가 불고있다 경매투자, 내 인생의 기회다!

불황에 돈되는 경매 세미나 2022년 10월 1일(토) 오후 2시

본 강자 2007 대선선정도서 '경매야 한판붙자' 저자 세미나

교육기간 : 2022.10.1.~11.18 (7주, 2개반운영)
 ▶토요일 14시~17시 ▶화요일 19시~22시

장 소 : 노형동 에이플러스에셋 제주교육장 (제주시 연복로46, 3층)

정 원 : 방당 선착순 10명이상

수 강 료 : 50만원 (신한은행 902-12-077738 진성호)

교육과정

- 1강) 역대급 불황, 부동산 X파일 대공개 (공개강의원)
- 2강) 불황기 경매, 내인생의 기회다 (시장/정책/투자)
- 3강) 나홀로 경매소싱 (검색/분석/입찰가산정/모의입찰)
- 4강) 경매의 꽃, 권리분석 마스터 (통합등기부위주 실습)
- 5강) 불황에 돈되는 경매투자법 (3대분석/자금조달 실습)
- 6강) 경매투자 실전사례 (천재기경매/반값경매등 실전위주)
- 7강) 3대가 흥하는 경매투자 꿀팁 (법인투자/부동산발류업)

강사 진성호 : <경매야 한판붙자>의 다수 출간 > 제주한라대 겸임교수(前) > 전국부동산실사박사연합회 학술교육위원장(전) > 제주부동산닷컴 대표

수강 혜택 : 경매회원권 경매투자 꿀팁(기본상담 및 투자자문) > 법인실질/발류업/절세상속증여 꿀팁(우려상담 및 자문)

문의 : 부동산종합서비스 스마트하우스 제주지사 ☎ 010-2696-2344